벤처 생존과 도약의 열쇠, 기술

지난 연말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각 부처들의 벤처지원 방안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제도와 지원이 선행된 이 시점에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 생존과 도약의 열쇠인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보호 육성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기술력으로 외환위기를 넘겼고 다시 한번 기술로서 2만불 시대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의 핵심가치, '기술'을 얘기한다.

벤처, 왜 기술인가?

바야흐로 무한기술 경쟁시대다. 한국경제는 고부가지식기반 산업 구축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특히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안과제다. 기술로 승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혁시키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벤처산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 우수 인력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6위(세계 경제포럼의 2004년 보고서)로 끌어올린 숨은 공신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벤처를 집중 지원,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를 보면서 기술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술 개발에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은 끊임없는 R&D 투자와 핵심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해야하는 벤처 본연의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 기술유출 방지가 왜 필요한가

기술 경쟁력이 향후 기업의 성패는 물론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을 확보할 것인가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기술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1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해 피해 예상액만도 총 4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술유출이 그간 우리 기업이 이룬 기술축적과 경제성장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제 기술유출은 기업차원을 넘어 범국민적으로 막아야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핵심기술이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기술개발인 핵심인재를 꾸준히 육성해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기술유출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벤처, 왜 기술가치 평가를 말하는가

기술의 개발과 유출방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가치평가란 기술거래나 기술담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전문화된 기관과 인력이 필요하다.

기술평가모델의 신뢰성을 통해 벤처기업의 신뢰도 더불어 회복할 수 있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힘입어 건전한 벤처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벤처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과 유출방지와 더불어 기술벤처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한다.